

목표 알고 가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

봉암사선덕 법연 스님



봉암사로 가는 길이 이어진 계곡에는 층층나무가 백자색 꽃을 피우고 있는가 하면, 꽃 저버린 벗나무는 연꽃빛 나뭇잎을 꽃인양 진중하게 달고 있다. 연꽃빛 신록이 꽃만큼이나 곱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봉암사 일주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 '동방제일수행도량'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에 젖는다. 한때는 봉암사에 삼천여 대중이 머물렀고, 동방장과 서방장으로 나누어 정진을 할 정도였다.

산책이기도 하지만, 도량 전체가 묵인 정진에 들어갔는지 조용하기만 하다. 그나마 장대에 걸린 빨래들이 바람에 너울너울 춤을 추고 있는 풍경이 낯설지 않아 한결 마음이 놓인다. 금색전을 지나서 태고선원 앞에 섰다. 진공문(眞空門)이라는 현판이 달린 일주문에는 '입차문내 막존지해(入此門內 莫存知解)'라고 쓰여진 주련이 걸려있다. '이 문에 들어올 때는 덧없는 알음알이는 버리고 한 마음 돌이켜 자기 존재의 실상을 밝혀라'는 경책이다. 한 스님이 진공문을 들어서기에 얼른 쫓아가서 그 안을 들여다 보았더니 노란색 민들레꽃이 지천으로 피어났다.

태고선원에서 이십분 정도 올라가면 백련암이 나온다기에 부지런히 걸었다. 수레 정도는 다닐 수 있는 산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는데도 '백련암' 팻말이 보이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휴대폰도 터지지 않으니 물어볼 데도 없다. 무조건 앞을 향해 걸었는데, 양 갈래로 나뉘어진 길이 나타났다. 어느 쪽으로 가야할지 막막하다. 그야말로 로보트 프로스트의 '가보지 못한 길' 시(詩)가 절로 떠오른다.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었습니까/ 한 몸으로 두 길을 다 가볼 수는 없어/ 서운한 마음에 한참 서서/ 답불 숲속으로 접어든 한 길을/ 팔간 데까지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쪽 길을 택했습니다.

두 갈래 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사람의 발길이 오고간 듯한 길을 택했다. 산모퉁이 돌아 한참을 올라갔지만 바람소리와 목탁새의 나무 쪼는 소리만이 컷가를 스친다. 값싼 길을 되짚어 내려와서는 가보지 않은 길을 택해 걸었다. 개울물에 놓인 징검다리를 건너서 또 한참을 걸었다. 산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아 외딴 무서움이 엄습했다. '길은 길로 이어지기에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고 했던가. 대웅전으로 돌아가서 길을 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내려왔다.

백련암 암주 법연 스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앞이 무성한 산속이 백련암으로 올라가는 길을 반쯤은 가로막고 서 있다. 단청도 없는 퇴락한 백련암에는 이제야 봄이 무르익고 있었다. 벚꽃과 돌베나무의 하얀 꽃은 음전하게 도량을 단장하고 있

는데 반해 분홍빛 복사꽃은 도회의 은성한 불빛마냥 화려하게 산중 도량을 의호하고 있다.

스님의 거처에 들어서자 시계 바늘이 한 오십년은 거꾸로 돌아간 느낌이다. 아미타불이 모셔진 그 공간은 법당이자 스님의 수행처이자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것이다. 낱살과 씨살을 대충 얹어매어 만든 찰호로, 짚으로 만든 씨앗통, 벽에 걸린 낡은 삿갓 등등. 낡아서 소박해서 단순해서 작아서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있다. 법연 스님께 삼배를 올리려는데 손사래를 친다. 봉암사 입구에서 한 노장 스님이 포쟁이로 하수구를 청소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법연 스님이라 깜짝 놀랐다. 아이구 송구스러워라, 사진까지 찰까 하고 찍었는데...

"옛날에는 신발을 아예 안에 들여놓고 살았어. 신도들이 찾아오면 차라도 같이 마셔야 하고, 그런 번잡한 것이 싫어서 뭘 수 있으면 반연을 만들지 않

게 욕을 하고 나서 며칠 후에 봤더니 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라. 내가 잘못 본 거지. 감나무에게 어찌나 미안하던지 '내가 잘못 봐가지고 야단을 쳤으니 이젠 마음을 풀게' 하고 정중하게 사과를 했어. 감나무도 사과를 받아들였겠지."

제 할 일을 다 하지 못하는 나무에게 야단을 친 것도, 나무에게 잘못했다고 정중하게 사과를 한 것도 '감나무에게 불성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싶다. 조주 선사에게 한 스님이 "자나무도 불성이 있습니까?"하고 물었더니 조주 스님은 "있다"라고 답하지 않았던가.

법연 스님은 유복한 집안의 장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홉 살에 동진출가 했다. 출가동기를 여쭙았더니 "우연히 절에 놀러갔는데, 어린 마음에 절이 참으로 좋아 보이네요. 그래서 며칠 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절로 가버렸지. 출가할 것도 없어"라고

알려져 있는 터이다. 그런데도 당신의 공부는 입 밖에 내지 않으시려 한다. 스님께서 따라주시는 차를 맡음이 마시다가 무슨 화두를 참구하시는지 궁금하여 또 다시 여쭙었다.

"천지가 화두라!"
천지(天地)에 화두 아닌 것이 없다는 말씀에 고개를 들어 밖을 내다보았다. 제비꽃도, 조팝나무도, 바위도, 하늘의 구름도, 여름날의 태풍도, 한 겨울의 눈보라까지도 이 모든 것이 다 법연 스님에게는 화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처님 법문이 팔만사천 가지인데, 그것은 수행방법이 팔만사천 가지인 것이다. 사람들은 화두가 아니면 삼불하지 못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그 대신 바로 딱 깨달으면 화두참선이 가장 빠르지. 화두참선이 들어오기 전 신라에도 도인(道人)이 많았음을 생각할 때 간화선만이 전부야 아니를 알아야 해요. <육조단경>에 보면 최상근기(最上根器)가 참선을 한다고 했어. 누구나 생각만 내면 최상근기가 되는 것이지. 보통 자신은 하근기(下根器)라서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데, 상근기(上根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냐. 자신이 상근기(上根器)라 생각하면 그 순간 상근기인 것이고, 나는 하(下)열(劣)하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하근기인 것이지. 내가 최상근기(最上根器)라 생각하고 화두 들면 그만큼 공부도 잘되는 것이야. 공부에는 승속이 없어. 승속을 떠나서 누구나 다 열심히 하면 부처님처럼 대자유인이 될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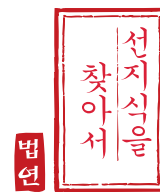
법연 스님은 어느 수행법에 집착해 구속되는 법학(法縛) 또한 조심해야 할 것이라 했다.

"아는 길을 가는 것은 쉽지만 모르는 길을 가면 어려운 것처럼 부처님 법도 그와 같아요. 평소엔 자신이 많이 하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요. 화두를 들던지, 염불을 하던지, 다라니를 하던지 무엇이든 일념(一念)으로 하면 됩니다."

아홉 살 어린 나이에 낯선고 물설은 절집에 살면서 세속의 삶이 궁금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세속의 삶이 궁금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벌써 절집을 나가겠지"라고 하신다.

"요즈음은 행자들이 늦은 나이에 들어와서 중풍을 들이기도 전에 나가버리는데, 그것이 안타까워요. 절에는 승속을 막론하고 신심이 없으면 못사는 곳이지. 신심이 없으면 공부도 안 되고, 공부 안하면 절에 살 이유가 없지. 공부도 안하면서 절에 사는 것은 큰 빛지는 것이야. 절에 있는 것은 모두 비싼 것임을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요만한 작은 것 갖다 바치고도 큰 것을 버려나 시주들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 몰라요. 내 노력으로 번 것이 아니라 신도들의 시주로 사는 것이니 그것은 무서운 것이지. 오죽하면 옛 어른들은 '견성성불 못하면 시주물 한 방울도 소화 못시킨다'고 했을까."

'여일하게 두는 것이 참선' 이기에 좌선 대신 울력해도 공부 문제 없어



려고 하지."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아예 신발을 안으로 들여다 놓고 공부하셨다는 말씀에 잠시 할 말을 잊었다.

"백련암 찾는다고 좀 헤매었어요. 무조건 열심히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최소한 자신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 정도는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동방으로 가야하는데 서방으로 가고 있으면서 무조건 열심히 간다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는가? 자신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나 가야지. 오늘 그것 하나만 알고 가도 봉암사에 온 보람이 있어. 그것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아도 좋을 거야."

법연 스님을 찾아뵙고 못하지 않게 좌우명을 받았으니 이 또한 기쁜 일이다. 스님은 점심공양 시간도 지났으니 배고프겠다고 핏감을 내주었다. '꽃감이 달고 맛있다' 했더니 스님은 웃으면서 '야단맞은 꽃감'이라 한다.

"예년에 비해 감나무에 감이 영 안 달린 것 같아서 과실수가 열매도 못 맺는다고 막 야단을 쳤어. 그렇

하신다. 그렇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슬그머니 찾아간 절이 대둔사이며, 그렇게 시작한 수행생활이 육십여 년이 흐른 것이다.

그동안 낙산사, 상원사, 화암사에서 살기도 했지만, 봉암사에 바탕을 내려놓은 해수가 사십년쯤 된 단다. 법연 스님의 시간은 흘러만 간 것이 아니라, 백련암의 이끼 낀 기왓장에 쌓여있을 것이며, 돌베나무 꽃잎 속에서 자라고 있을 터이다. 무려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뀌었지만 스님은 꺾이지 않고 그렇게 한 자리에서 공부를 일구어 내신 것이다. 봉암사에만 왜 그렇게 오래 살았느냐고 여쭙었다

"저 돌베나무와 나무들이 훨씬 더 오래됐어. 여기만큼 수행하기에 더 좋은 곳이 안보이네요. 난 게을러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를 못해."

스님의 공부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수행하실 때 힘든 일이 많았을 것 같다"고 했더니 "난 수행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것 몰라. 목숨 내놓고 공부 못한 것이 후회야 돼"라고 하신다. 스님은 자신의 공부가 여물지 않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단다. 법연 스님은 많은 수좌 스님들로부터 존경받는 분으로 널리

법연 스님은 1943년 선산에서 출생. 아홉 살에 대둔사로 출가. 그 후 상주 남장사, 오대산 상원사, 낙산사, 화암사에서 수행정진했다. 지금은 문경 봉암사 백련암에 주석하고 있으며, 봉암사에 머문 지 사십 년이 된다.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퇴마,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100만원

특기 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6주 24시간,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이라는 문구에 "정말될까?"라고 반신반의 하면서 공부하셨던 10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 무초 정락 합장 -

특별상담

- 불자님들의 요청에 교육없는날 1일 1분씩만 상담을 받습니다.
- 빙의와 神病으로 고생하시는 분
- 자녀의 기출, 습관, 성적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 우울증, 알코올중독, 게임중독, 마약중독 등...

(사)유마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세일빌딩 401호 ☎ 02)763-0661~2

개인 특별지도

시간없으신 스님들을 위하여 2박3일
실습위주로 교육 (hard training), 신분비밀보장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제5회 산림수계법회 및 법계품수 수여식

본종단에서 실시하는 산림수계와 법계품수 수여식에 중도 및 신도여러분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일시 : 불기2553년 5월 17일(일요일) 오후 2시
장소 : 대한불교전통조계종 대승사 대법당

- 수계법회 (보살계, 사미계, 사미니계, 구족계)
- 전계아사리 : 각암 ■ 교수아사리 : 보각
- 갈마아사리 : 지도, 법계구분(대선, 중덕, 대덕, 종덕, 종사, 대종사)

* 승려증 갱신 기간이오니 승려증 복사하셔서 사진 1매를 동봉하여 행정원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행정원 : 대구시 북구 읍내동 1122번지 대승사
문의처 : 053)325-5288, 010-2013-0082, 010-6236-5557

참신한 중도를 모집합니다